

# 융복합 시대에 초기청소년들의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임재숙<sup>1</sup>, 구본숙<sup>2</sup>, 조옥선<sup>3\*</sup>

<sup>1</sup>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서울학습도움센터, <sup>2</sup>안양YMCA 가정폭력상담소, <sup>3</sup>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The Effect of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in the Times of Convergence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Jae-Sook Lim<sup>1</sup>, Bon-Suk Gu<sup>2</sup>, Ouk-Sun Cho<sup>3\*</sup>

<sup>1</sup>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Elementary Seoul Learning Aid Center

<sup>2</sup>Kore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sup>3</sup>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시대에 초기청소년들의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있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초기청소년 225명을 대상으로 우울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및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을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에 있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에 있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현장에 적용하길 바란다.

주제어 : 융·복합, 초기청소년, 우울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자살생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path analysis model for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were used to examine the 225 early adolescent students of grades between 4 and 6 attending elementary schoo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esteem of early adolescents was partially mediated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Second, the satisfaction of life of early adolescents was partially mediated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other words, in order to lower the suicidal ideation of early adolescents, various programs are need to be developed to improv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apply them to practice.

**Key Words** : Convergence, Adolescents,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Suicidal Ideation

### 1. 서론

우리사회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초기청소년의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심각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5.6명으로 OECD국가 평균 12.1명의 2배를 넘어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1]. 이러한 자살률이

\*Corresponding Author : Ouk-Sun Cho(sun16070@naver.com)

Received July 16,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August 2,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매우 높은 수준인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자살률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수는 2000년 인구 10만 명당 3.8명에서 2009년까지 6.5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0년 5.2명, 2015년 4.2명을 기록하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 4.9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그 중 10-14세까지의 자살은 한해 평균 48.3명으로 나타나 자살 현상이 초기청소년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1]. 자살은 모든 연령층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사회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조사에 의하면 자살생각을 보인 경우 실제 자살 시도율이 42%에 달하는 데 반해 자살생각이 없었던 경우에는 한 명도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 중 53.6%가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자살생각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2,3]. 따라서 자살의 문제가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를 인식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개입전략이 필요한 단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찾아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의 자살생각 관련연구들은 청소년이나 청장년 및 노인의 자살생각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학령기 아동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한편, 많은 자살생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등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임을 제시하고 있다[4-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다른 연구에서 밝혀내지 않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의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초등학교 4, 5, 6학년에 해당하는 초기청소년의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자살생각과 관련한 심리적인 특성으로 우울을 꼽을 수 있다. 우울은 정서적인 변화로서 우울수준이 높아졌을 때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울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살행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3]. 실제적으로 우울은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정서의

슬픈 감정상태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심한 정신병적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울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의 큰 문제를 야기하거나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8,9]. 이렇게 우울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10], 자살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우울이라고 보고 있다[11].

중학생의 우울정도에 따른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우울은 자살생각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을 연구한 [11]의 연구에서도 매개 변인인 우울은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우울과 관련 있음을 밝히고 있는 연구들이 있어 우울수준을 낮추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10,12].

자살생각과 관련된 중요한 또 다른 심리적인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며 자신의 수용 및 존중을 의미한다[13]. 아동기에는 가족과 주변환경 및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긍정적인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14]. 그러나 자아존중감형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적응상의 어려움을 갖게 되고 심하면 자살행동에까지 이르게 되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아동 자살에 대한 자살의 위험성을 약화시키는 개인차원의 긍정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5,16].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 불행감이 높아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되돌릴 수 없는 길에 접어들게도 하는데[17], 자살위험에 있거나 이미 자살을 시도 하였던 청소년에게서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그리고 자살생각 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18], 자살과 자아존중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살생각이 많을수록 자아긍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20].

실제로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다수의 연구에서 이 두 변수 간에 높은 상관성과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고[17,18],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을 연구한 2012년 Moon & Park[3]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있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매개효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기평가가 부정적이거나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자살생각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삶의 만족도란 개인의 생활전반에서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의 감정상태로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21],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고 있다. 즉,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의 수준이나 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의미한다[7].

한국 초, 중,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을 조사한 2013년 Kang et al.[10]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정적 정신건강에 해당하는 자살생각 수준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이 좋아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에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자살생각이 적어진다고 밝히고 있다[7].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사건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므로 유용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2,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생각 요인이 어떻게 작용 하며, 또한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가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 있어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초기청소년들의 우울감을 낮추어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첫째 초기청소년의 우울감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둘째 초기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 셋째 초기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강남과 강북 및 경기도 성남시

에 소재한 초등학교 각각 3개교를 선택했으며, 그중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시점은 4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는 연구자가 각 학교에 방문하여 각 반 담임선생님께 본 연구의 목적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이후 각 반 담임선생의 도움으로 재학생들에게 다시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질문지 응답은 무기명이고 설문에 응답하기 싫은 학생은 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었다. 조사대상은 비확률표집인 판단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포하고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를 방문하여 240부를 회수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225부 활용하였다.

### 2.2 측정도구

#### 2.2.1 자살생각

본 척도는 Reynolds[24]의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1992년 Shin[25]이 번안하여 17개 문항으로 연구한 것을 자살생각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5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자살생각 문항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이 있음’, ‘최근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음’,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음’, ‘누군가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을 해본 적이 있음’, ‘인생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20으로 높게 나타났다.

#### 2.2.2 우울감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척도인 CES-D를 활용했다[26]. 우울감 척도는 ‘두려움’,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짐’, ‘외로움’, ‘집중하기 어려움’, ‘기운이 없음’ 등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울감이라 정의한다. 우울감 척도 문항 중 역문항인 ‘비교적 잘 자냄’, ‘큰 불만 없이 생활함’ 문항은 역변환 처리해 분석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1점 ‘하루 미만’부터 4점 매우 ‘5-7일’로 이루어졌다. 우울감 문항 중 ‘비교적

잘 지냄’, ‘큰 불만 없이 생활함’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4보다 작아 타당도를 떨어뜨려 제외하고 총 8문항으로 이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53로 높게 나타났다.

### 2.2.3 자아존중감

본 척도는 1965년 Rosenberg[27]가 개발한 것을 1999년 Hong[28]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지만 1999년 Hong[28]은 리커트 4점 척도로 변형해 사용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각각 5문항씩 총 10문항이며, 부정문항은 역점처리 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뜻한다. 자아존중감 문항 중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4보다 작아 타당도를 떨어뜨려 제외하고 총 9문항으로 이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값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868로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1점 ‘매우 그렇다’부터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졌다.

### 2.2.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2006년 Kim et al.의 삶의 만족도 문항으로 나는 사는데 즐겁고, 걱정거리가 별로 없으며,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함 등 3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1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값인 Cronbach's alpha는 .881인 것으로 나타났다.

## 2.3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기청소년들의 자살생각과 관계있는 변수를 파악해보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술통계 분석으로 왜도와 첨도의 통계치를 통해 정규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자살생각과 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초기청소년들의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에 있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으로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Baron & Kenny[29]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Sobel test 활용하여 간접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모든 분석을 위해 결측값은 회귀대체법으로 처리했으며 이상치를 검증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 3. 연구결과

### 3.1 인구사회학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초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45명(53.1%), 여학생이 128명(46.9%)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청소년의 학년을 살펴보면 초등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98명(36.3%)이고, 다음으로 5학년이 89명(33.0%), 6학년이 83명(30.7%)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학교성적을 살펴보면 보통이 129명(47.3%)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잘한다는 102명(37.4%), 매우 잘한다는 34명(15.3%), 못한다는 12명(4.4%)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인 초기청소년은 주관적인 성적이 대다수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형태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73.7%).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39명(50.9%)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이 80명(29.3%)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44명(16.1%)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3.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초기청소년들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자살생각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를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sd)를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면, 우울감 요인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1.407(sd=.553), 자아존중감 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3.236(sd=.616), 삶의 만족도 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4.175(sd=.839), 자살생각 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1.265(sd=.503)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왜도는 절대값이 3보다 작았으며, 첨도는 절대값이 10보다 작아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N	%			N	%
Student's Gender	Male	145	53.1	Family type	Parent and children	196	73.7
	Female	128	46.9		Other	70	26.3
School Year	Elementary 4 <sup>th</sup> grade	98	36.3	Sibling relationship	Alone	49	18.3
	Elementary 5 <sup>th</sup> grade	89	33.0		Brother and Sister	98	36.6
	Elementary 6 <sup>th</sup> grade	83	30.7		2 Brothers	47	17.5
Religion	Protestant	103	38.1		2 Sisters	39	14.6
	Catholic	22	8.1		Other	35	13.1
	Buddhism	21	7.8	Agriculture/ Fishing/ Forestry self-employment	3	1.1	
	Atheism	97	35.9	employee	144	54.5	
	Other	27	10.0	Father's occupation	Profession	20	7.6
School Grade	Needs improvement	12	4.4		official(government employee) / soldiers / teachers	16	6.1
	Satisfactory	129	47.3		part-time / day labor	2	.8
	Good	102	37.4		other self-employment	55	20.8
Father's education level	Excellent	30	11.0		Mother's occupation	office worker	18
	High school or lower	52	21.8	profession		18	6.8
	Bachelor	125	52.5	official(government employee) / soldiers / teachers		39	14.7
Mother's education level	Master or higher	61	25.6	housewife		58	21.8
	High school or lower	57	23.6	part-time / day labor		4	1.5
	Bachelor	134	55.4	Economic level	Technical	3	1.1
Master or higher	51	21.1	Other		71	26.7	
Lower	10	3.7					
Economic level	Middle	80	29.3				
	Upper	139	50.9				
	Very high	44	16.1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272)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depression	1.00	4.00	1.407	.553	2.041	4.439
self-esteem	1.00	4.00	3.236	.616	-.809	.496
life satisfaction	1.00	5.00	4.175	.839	-1.232	1.619
suicidal ideation	1.00	3.800	1.265	.503	2.312	5.230

3.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초기청소년들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자살생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우울감은 자아존중감( $r=-.504, p<.01$ ) 및 삶의 만족

도( $r=-.533, p<.01$ )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자살생각( $r=.598, p<.01$ )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 $r=.674, p<.01$ )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살생각( $r=-.558, p<.01$ )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1			
self-esteem	-.504**	1		
life satisfaction	-.533**	.674**	1	
suicidal ideation	.598**	-.558**	-.597**	1

\*\*p<.01

설명된다. 삶의 만족도는 자살생각( $r=-.597, p<.01$ )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확률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서 보면 주요 변수들 간의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3.4 연구모형분석

본 연구모형은 초기청소년들의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Baron & Kenny[29]가 제안한 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검토한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유의미하게 산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Baron & Kenny[29]는 매개효과 분석결과에서 첫 번째 시행한 결과 값인 독립변수의 영향력보다 두 번째 시행한 결과 값인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낮아져야 하며 두 번째 시행한 결과값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세 번째 시행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Baron & Kenny[29]의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3.4.1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은 먼저, 1단계는 우울감과 자살생각의 영향 관계를, 2단계는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3단계에서는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흐름을 분석하였다.

Table 4의 1단계에서 우울감( $\beta=.598, t=12.238, p<.001$ )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35.8%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우울감은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beta=.423, t=8.030, p<.001$ ).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46, t=-6.567, p<.001$ ). 2단계에서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보다 낮고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44.2%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우울감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beta=-.504, t=-9.541, p<.001$ ). 또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우울감의 설명력은 25.4%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기청소년들의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에 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Table 4.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Level	Variable	B	$\beta$	t	F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1 level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545**	.598	12.238	149.780**	.358	.355
2 level	depression, self-esteem→suicidal ideation	.386**	.423	8.030	107.668**	.446	.442
		-.283**	-.346	-6.567			
3 level	depression→ self-esteem	-.562**	-.504	-9.541	91.039**	.254	.251

\*p<.05, \*\*p<.01, \*\*\*p<.001,

Table 5.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Level	Variable	B	$\beta$	t	F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1 level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545**	.598	12.238	149.780**	.358	.355
2 level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suicidal ideation	.356**	.390	7.380	116.017**	.465	.461
		-.233**	-.388	-7.339			
3 level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811**	-.533	-10.315	106.403**	.284	.282

\*\*p<.01, \*\*\*p<.001,

### 3.4.2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인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에 기록하였다. 1단계는 우울감과 자살생각의 영향 관계를, 2단계는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가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3단계에서는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흐름을 분석하였다. Table 5의 1단계에서 우울감( $\beta=.598, t=12.238, p<.001$ )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35.8%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우울감은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beta=.390, t=7.380, p<.001$ ).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88, t=-7.339, p<.001$ ). 2단계에서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보다 낮고 삶의 만족도가 자살생각에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46.5%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우울감은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33, t=-10.315, p<.001$ ). 또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우울감의 설명력은 28.4%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기청소년들의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에 관계에 있어 삶의 만족도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모형의 독립변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 값이 0.1이상을 보여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 검증결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가 우울감과 초기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에 있어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Table 6에서 보여주고 있다. 즉,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6. mediatet effect verification

Path	Sobel test statistic	p
depression → self-esteem → suicidal ideation	5.415	.000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 suicidal ideation	5.939	.000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기청소년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초기청소년의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우울과 자살생각 간에 있어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1단계에서 통제변수는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단계에서 우울감은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3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4단계에서 삶의 만족도는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경로 분석한 결과 우울감과 자살생각 사이에서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초기청소년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7-12], 우울수준에 따른 위험군을 선별하고 조속한 개입이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초기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매우 중요한 작용임을 밝힌 것은 다른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중요한 연구결과이다.

다음으로 초기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긍정요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 매개변수로서 자살생각의 중요한 설명변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자신에 대한 수용과 존중 및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는 초기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가정 및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족원의 충분한 지지 및 부모교육, 교사 교육,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멘토링 제도 등 여러 학교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강한 자아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집단상담, 개인상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토론, 미술치료, 놀이치료, 명상훈련, 긴장이완 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인 실천분야로서 보건의료분야, 상담분야, 교육분야, 정부기관, 종교기관 등에서 초기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논의하고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직·간접경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초기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은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가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자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도 의미 있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성남시와 서울시의 일부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과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것 외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변수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초기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조사한 연구로서 자살생각에 관한 저연령화의 심각성을 반영하였으며, 초기청소년의 우울수준을 낮추어야 하는 이유와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가 자살생각을 완충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2017). *Annual Report of the Cause of Death*. <http://www.kostat.go.kr/>
- [2] S. C. Hong, S. C. Hong, M. D. Kim, Y. E. Jung, C. I. Lee, Y. S. Kwak, H. J. Kim, W. M. Bahk, B. H. Yoon, J. H. Shin, & M. Y. Hyun. (2014). Suicidal Ideation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25(2), 79-84
- [3] S. B. Moon & S. Park. (2012). A Structural Analysis of School-aged Children's Suicide Ideation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2), 75-86.
- [4] H. J. Shin, I. J. Chung, S. A. Lee, H. Y. Lee & J. Y. Park. (2014).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Suicide Plans and Suicide Attempts in Adolescence. *Jeneral of school social work*, 27, 25-50.
- [5] J. S. Park & J. W. Moon. (2005).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27, 105-131.
- [6] D. Y. Lee, G. H. Jung & H. Y. Seo. (2017). Suicidal Ideati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press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30(2), 136-145.
- [7] M. J. Song. (2013). The Effect of Attitude toward Death and Life Satisfaction on Suicidal Ide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 23-42.
- [8] J. M. Burns & G. C. Patton. (2000).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Youth Suicide: A Risk Factor-Based Approach.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4(3), 388-407.
- [9] C. Tennant. (2002). Life Events, Stress and Depression: A Review of Recent Finding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6(2), 173-182.
- [10] J. K. Kang, S. N. Jeon & H. K. Shin. (2013). The Influence of Self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Hopelessness on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0), 527-536
- [11] W. K. Kim. (2014).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in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Youth. *Studies on Korean Youth*, 25(3), 199-231.
- [12] S. A. Kim. (2009). Effects of Childhood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n Middle School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3), 5-27.
- [13] J. W. Lee & K. H. Kang(2014).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5(4), 69-74
- [14] S. H. Jang & M. A. Lee. (2010). Study on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Focusing on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8), 27-55
- [15] Y. N. Lee. & S. R. Shin. (2016). A Study on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Child Suicidal Ideation.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60, 189-216.
- [16] S. S. Kim & J. H. Jeong. (2016). The Effects of Parent'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n the Children's Suicidal Ide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2), 257-267.
- [17] C. S. GU & D. H. Kim. (2006). The Effect of Adolescent's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 on Suicide



Ideation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8), 225-256.

[18] Y. H. Jang & J. H. Song. (2011). Influence of the Experience of the Childhood Abuse on the Self-Esteem and Suicidal thought in the Adolescence Period. *Institute of Policy Science*. 20(2), 80-104.

[19] Y. J. Oh & H. D. Kim. (2018). A study on predictive factors of Elderly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9

[20] Y. J. Kim & C. H. Lee.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6), 539-547

[21] Y. T. Chang. (2017). The Effects of Anger Expression Types on Life Satisfaction of Forest Recreation Resource Users in the Times of Convergence :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Typ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219-227

[22] C. L. Proctor, P. Linley & J. Maltby.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 583-630.

[23] H. Y. Chun, Y. J. Song & M. R. Lee. (2014). A Clustering Study of the Variables Related to Elementary School 5th Graders' Levels of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5(3), 71-92.

[24] W. M. Reynolds. (1988). SIQ,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7-30.

[25] M. S. Shin. (1992). *(An)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6] M. M. Weissman & B. Z. Loke. (1975). Comparison of a Self-Report System Rating Scale(CES-D) with Standardized Depression Raing Scales in Psychiatric Populations. *Am Journal Epidemiol*, 102(5), 430-431.

[27]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Inc.

[28] N. M. Hong. (1999).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 University.

[29]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6), 1173-1182.

임 재 숙(Lim, Jae Sook)

[정회원]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상담학석사)
- 2018년 6월 ~ 현재: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서울학습도움센터
-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의 정서행동, 대상관계, 성격과 진로 및 학습
- E-Mail : jslimv@hanmail.net

구 본 숙(Gu, Bon Suk)

[정회원]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상담학석사)
- 2017년 2월 ~ 현재 : 안양YMCA 가정폭력상담소
-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부부, 진로, 임상심리
- E-Mail :gbs629@naver.com

조 옥 선(Cho, Ok-Sun)

[정회원]



- 1987년 2월 : 충남대학교 수학과(이학사)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간호복지학부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여성, 장애
- E-Mail : sun16070@naver.com